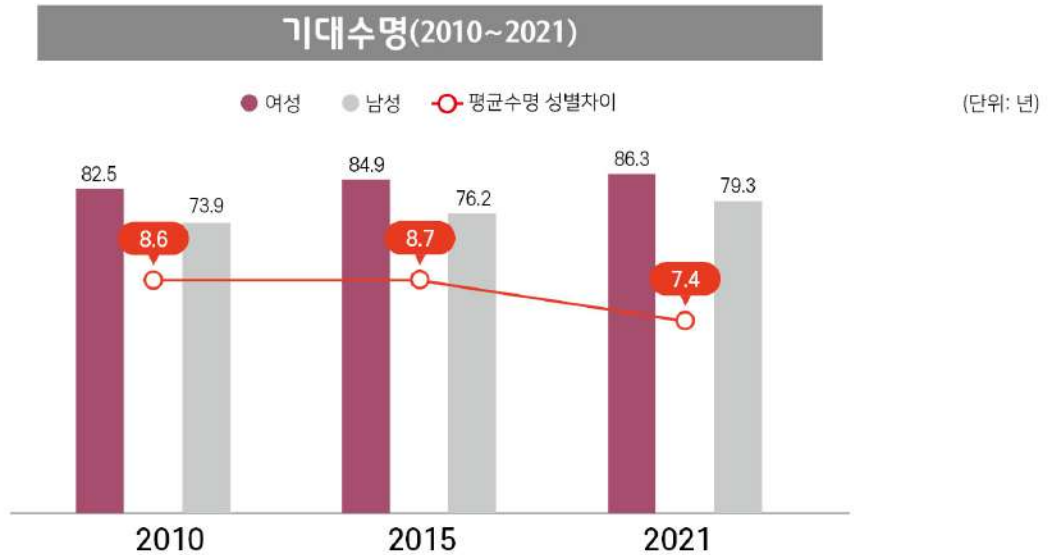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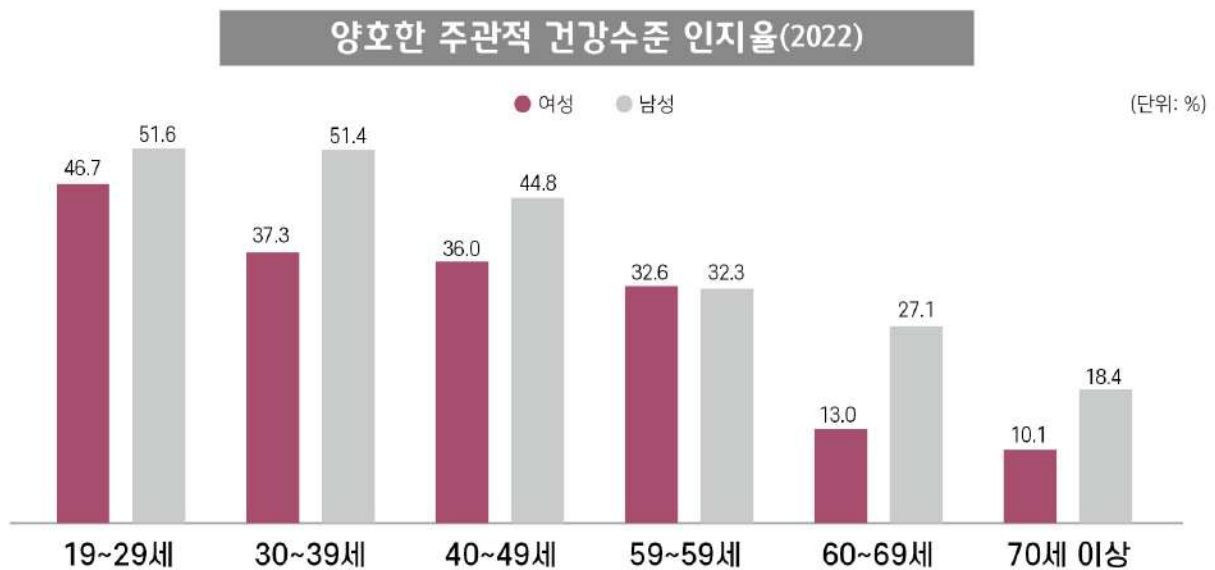
4. 보건

건강상태

평균기대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길었고,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임

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, 지역별 기대수명지표, <표 4-1>
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, <표 4-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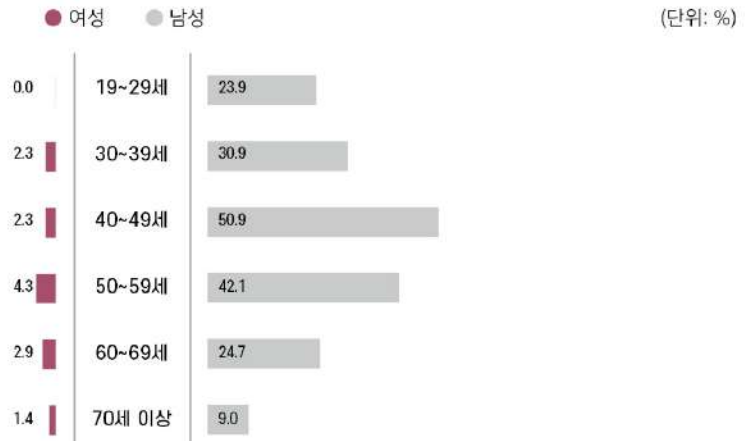
-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 모두 늘어나는 추세임
- '20년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6.3년, 남성은 78.9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7.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남
-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 19~29세 청년층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함
-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성별 차이는 50~5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

4. 보건

건강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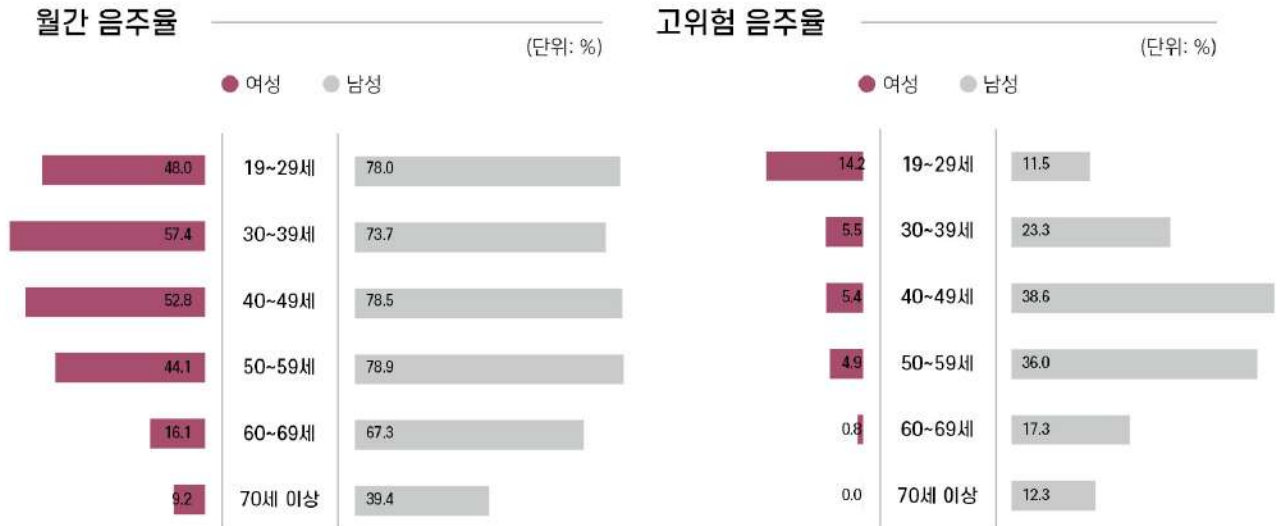
흡연률 및 월간 음주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, 남녀 모두 장년층까지 증가하다 감소함

흡연 인구 비율(2022)
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, 지역사회 건강통계. <표 4-3>

월간 음주 인구 비율(2022)
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, 지역사회 건강통계. <표 4-4>

- 전 연령대에서 남성 흡연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
- 여성의 흡연율은 60세 미만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이며 남성의 흡연율 역시 50세 미만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임
- 최근 1년,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, 여성은 30~39세(57.4%), 남성은 50~59세(78.9%)가 가장 높음
-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(여성 5잔) 이상인 고위험 음주율은 19~29세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, 여성은 19세~29세(14.2%), 남성은 40~49세(38.6%)가 가장 높음

여성은 30~39세, 남성은 40~49세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꼈고, 우울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함
 자살에 대한 충동이 든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지만, 고의적 자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음

스트레스 인지율(2022)
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, <표 4-11>

우울감 경험률(2022)
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, <표 4-12>

자살 하고 싶은 이유(2020)



자료: 경상남도, 「경남사회조사」,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 포털, <표 4-14>

자살 현황(2000~2021)



자료: 통계청, 「사망원인통계」, KOSIS, <표 4-15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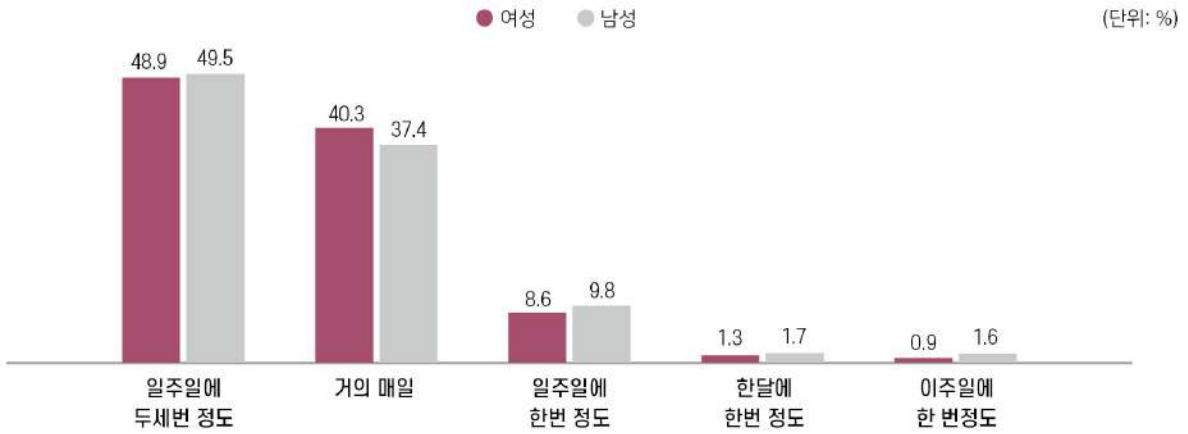
- '21년 기준, 연령대별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성은 30~39세(36.0%)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지만, 남성은 40~49세(28.8%)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- '21년 기준,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상생활 중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큼
- '20년 기준, 자살 충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. 여성의 자살 충동 이유는 남녀 모두 해당하는 경제적 어려움,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과 장애 외에 외로움과 고독, 가정불화로 나타남
- 인구 10만명 당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'21년 기준, 여성 12.9명, 남성 54.1명으로 남성이 41.2명 더 많음

4. 보건

운동

여성과 남성 모두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운동을 하고, 운동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시간 부족임

정기적인 운동 빈도(2022)



자료: 경상남도. 「경상남도사회조사」. <표 4-8>

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(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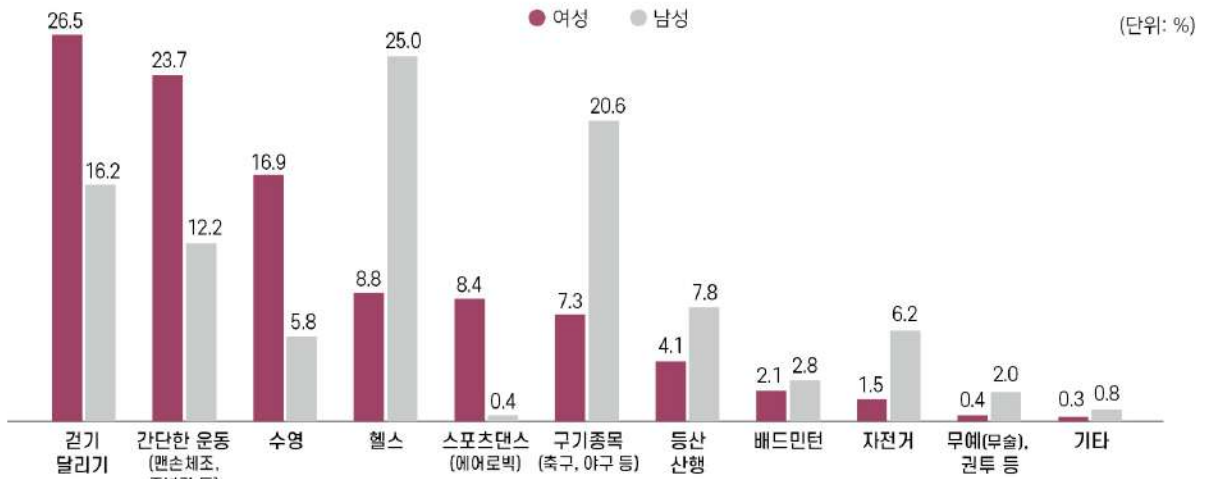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상남도. 「경상남도사회조사」. <표 4-8>

- 여성(48.9%)과 남성(49.5%) 모두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운동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
-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는 여성 40.3%, 남성 37.4%로 여성이 남성보다 2.9%p 더 높음
- 운동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시간 부족임

참여 희망 운동 종목은 여성은 걷기와 달리기, 남성은 헬스였고 해당 운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증설 되길 희망함

참여 희망 운동종목(2022)



자료: 경상남도, 「경상남도사회조사」, <표 4-9>

필요한 체육시설(2022)



자료: 경상남도, 「경상남도사회조사」, <표 4-10>

- '22년 기준, 참여 희망 운동 종목은 여성은 걷기와 달리기(26.5%)를, 남성은 헬스(25.0%)를 가장 많이 희망함
- 지역사회에 필요한 체육시설은 여성은 걷기와 달리를 위한 트랙(35.1%), 남성은 체력단련 기구(31.8%)임

4. 보건

건강관리

건강검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, 암검진 수진율은 남녀 모두 간암이 가장 높음

건강검진율 및 암검진 수진율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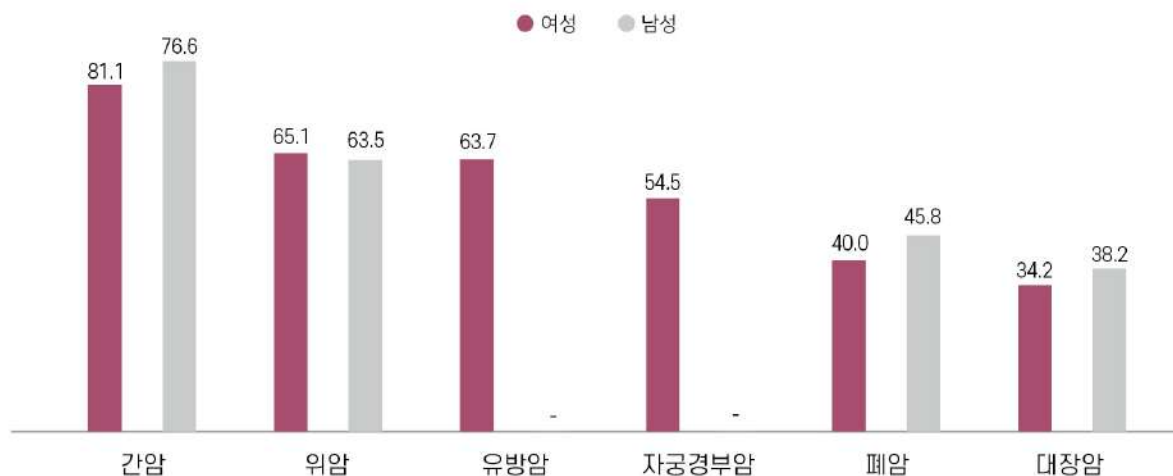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건강검진율



건강검진율 = 수검인원/대상인원×100

암검진 수진율



암검진 수진율 = 수검인원/대상인원×100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, 「건강검진통계」, <표 4-16>

- 남성의 건강검진율은 77.2%로 여성 72.8%보다 4.4%p 더 높음
- 암검진 수진율은 여성(81.1%)과 남성(76.6%) 모두 간암이 가장 높고, 대장암이 가장 낮음